

제목: 콘서트에 대해서...

문화생활과는 담뱃고 사는 로이.. 콘서트 한번 못가봤다. 미술전이나 음악회는 가본적이 있지만 콘서트나 연극은 학교 다닐적 행사때 말고 기억나는게 없다. 물론 미술전이나 음악회도 공짜로 감상하는 곳이었지만 말야..^^

그러나 옛날에 몇가지 인상깊었던건 KBS공개홀에서 열렸던 음악회와 에버랜드 공연장에서 있었던 러시아무용수들의 현란한 연극무대, 정말 TV에서 보는거와 감동이 다르다는거, 그것 빼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무대들은 정말 현장에서 보고 즐기는 것 외엔 별로 남는게 없는 것 같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돈주고 그런걸 즐기는 것이지만 말야...

제목: 미국은 우방국으로서의 성의를 보여줘라

늘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정보장을 확보하길 원했던 북한이 이번에 강공수를 들고 나왔다.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과거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보다 훨씬 강도높은 수위의 핵협상카드인 셈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의 미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라기보다 남한을 상대로한 핵인질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불량한 외교적 케이스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구두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의 효력을 주장하는 북한의 행동에서 얼마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자국에 대한 체제보장에 집착하고 있나를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남한과 러중일 3개국이 그렇게 북미의 멀어진 꿈을 좁혀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정도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어느나라의 잘잘못을 떠나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할 핵이 북한의 위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도 거기에 대해선 일말의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IAEA를 탈퇴한후 지속적으로 불가침조약에 상응하는 불가침협정을 주장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 미국은 구두로만 침략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번 이라크에 공병대를 파견해 주었던 한국에 대한 무성의한 외교적 결례며 한반도 안정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오해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북한의 응석을 대하는 미국에 대한 태도도 문제다. 미국이 진정 북한과 견줄 수 없는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에 목숨을 걸 이유도 없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인해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2차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라크 지원부대파병을 요청해 왔다. 진정 미국이 한국의 절친한 우방국이라면 지난 1차 파병때와 마찬가지로 2차 파병시 한국이 조건을 달지 않고 파병을 한다고 했을때 앞으로의 북핵문제에 있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을 잠재우기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에게 주지만 했지 주한미군이나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얻어내기는 커녕 혹 두개를 더 붙이고 지냈다. 즉 주한미군과 북핵문제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외교인가?

이번 2차 지원군 파병후 미국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외교적 도리를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계속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성도 점차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설령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외교적 불평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냐고 반문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 고전하는 미국을 의무부대 파병으로 도와주자.

이번 파병안에 대해서 미국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으니 절친한 우방으로서 이상천명은 너무 적은것 아닌가? 물론 이라크인들을 제압하는 전투병 말고 이라크 주민들과 미군들을 위한 의료·봉사부대 파병이어야 한다. 미국이 지난번 1차 파병때는 우리나라에 섬섬하게 대했는데 이번엔 무조건적인 파병으로 한미간의 관계를 두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전쟁후 현지에서 뒤통수에 고전을 많이 하고 있다. 조카가 삼촌을 위한 심정으로 차제에 미국을 믿고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도리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미국도 한국이 서운해 하는 것이 무엇이다란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적극 미국을 도와주는 것도 긴박한 국제정세에 있어 현명한 외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목: 전자민주주의를 도입해야...

전 이렇게 국회가 으름장같은 횡포를 부려도 국민이 손놓고 불구경하듯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런 따름입니다. 이게바로 시스템의 엉성함입니다.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칼부림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정보기술을 통해 전자민주주의 같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들의 만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할게(고려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제목: 쿨와이즈님의 최근글

우리 네티즌들이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이없는 권력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과업이지만, 그럴려면 우리들 중 누군가가 적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스템(?)이란 것에 관심은 많은데 실력이 워낙 모자라서요... ^^;

제목: 칼럼연합카페 운영자권유 메일을 받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Daum이 칼럼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칼럼니스트들이 Daum을 떠나

엠파스블로그 같은 곳으로 칼럼을 옮겨 활동을 하는게 가장 빠른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막 Daum의 메인화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Daum은 사용자들이 좋지 않는한 결코 지금의 칼럼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Daum이 목표로하는 것은 좋은 칼럼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자들을 모아 놓고 여러가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Daum의 메인 구성구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갖가지 온갖 유료서비스를 모아놓고 사용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소모적인 칼럼개선을 외치며 계속 여기에 남아서 글을 쓰면 쓸수록 칼럼의 조회수와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Daum은 더욱 칼럼개선에 소홀히 하고 그걸 방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럼은 메인에서 맨 구석에 밀어놓고 나머지 99.9%에 온갖 유료서비스와 광고만 실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연합카페와 칼럼연합칼럼을 죽 돌아보면서 모든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다 맞는 얘기고 상당히 수긍이 가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Daum은 못들은 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수의 칼럼니스트들이 여전히 계속 여기에 남아 비난의 글이든 좋은 글이든 자꾸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Daum은 계속 거드름피우며 많은 페이지뷰 곳곳에 착착 유료서비스를 구비해 놓고 이용자들을 기다립니다.

극단적으로 대부분의 칼럼니스트들이 모두 엠파스블로그 같은 곳으로 옮겨 칼럼 글들이 Daum에서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서 독자들이 줄고 덩달아 Daum을 이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타 포탈로 옮겨갈때 비로소 다음은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칼럼이 좋은 글이 많은 아님 다른 좋은 커뮤니티기능을 충실히 하든 칼럼 그 자체는 Daum의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칼럼을 이용자들이 외면할때 비로서 Daum은 정신을 차리고 칼럼을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다음칼럼연합카페와 칼럼에 올리셔도 상관없구요 이것을 "팔찌의 제왕"님께서 저에게 제의하신 Daum칼럼 연합카페 운영자 권유에 대한 사양의 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전 오늘 많은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읽고 조만간 Daum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Daum칼럼의 문제가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더이상 남는 것이 칼럼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Daum은 우리들이 모두 떠나도 남은 칼럼니스트들을 추스려서 추천칼럼과 랭킹의 장난을 가지고 계속 장사하고도 남을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고 여러분이 남으면서 계속 칼럼개선운동을 펼쳐나가다가 Daum칼럼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는데 그렇다고 저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Daum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떠나고 나서 칼럼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는데 우리 그때가서 다시 칼럼에 돌아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자신은 언제까지나 최고의 위치에 있을줄 알고 우리를 철저히 게을리한 친구(Daum)가 우리(칼럼니스트)들이 더이상 참지못해 모두 떠나자 그제서야 잘하겠다고 사탕을 주는데 그걸 덩싹 받아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유치한 짓은 전 못하겠습니다.

팔찌의 제왕님,님께서 보내주신 카페운영자권유 메일은 거절하지 않고 고이 모셔 놓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Daum탈퇴와 함께 모든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칼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늦은밤 글쓰기에 고생하시는 모든 칼럼지기 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럼...

2004년 5월 6일 새벽 12시 12분
다음 칼럼니스트 희망의빛™ 드림.

p.s

맞어, 칼럼니스트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이 있다면 Daum의 추천칼럼 공세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걸 받은적이 두번 있었지만 그 이후엔 계속 Daum칼럼 정책에 실망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가장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있길 기원합니다.

기타의견:

희망의빛™..

다음과의 전투는 무리한 개인적 요구보다 공통되는 사항들을 일단 강력하게 요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공통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칼럼소분류 문제 아닐까요?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새글을 써도 소분류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요. 지금의 방식은 순전히 추천칼럼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20:53:16]

희망의빛™..

뭐 이곳에도 추천칼럼 여럿 선정되신 분들 많지만 전 그걸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 몇번 선정된 적이 있지만 소신있는 글을 쓰기 위해선 여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엔 방문자들이 늘어서 좋지만 결국 칼럼니스트들이 Daum에 예측되고 마는거죠.

[23:01:05]

희망의빛™..

왜 다음이 추천칼럼 위주의 배열방식을 고집하는가 이전부터 공공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중에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엠파스에서 총선때 그걸 적극 활용했거든요? 한마디로 블로그 인기를 이용해 총선출마자들을 홍보해 준다는 겁니다.

[20:59:54]

희망의빛™..

이번에 엠파스에서 총선때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니만 최근에 와서 추천칼럼들의 홍보를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함 보세요. 블로그 메인창에 게시돼 있는 회색글씨 소분류들을 클릭하면 소분류 목록이 나와야 하는데 아예 추천칼럼과 대분류가 나오도록 바뀌버렸습니다.
[21:02:16]

희망의빛™.
이게 무슨 칼럼니스트들을 배려해주는 블로그입니까? 전 엠파스마저도 블로거들을 무시하면 아예 이 세계를 떠나서 좋은 칼럼시스템을 만드는데만 열중할 생각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좋은글을 써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받으면서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목: 장애인증 발급에 관한 추가댓글

장애인증 발급의 허술함으로 인해 위장 장애자들이 늘어나면 국가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임에 틀림없고 비장애자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 복지는 전체 장애인들을 생각했을때 분명 비용의 댓가가 큰 만큼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쿨와이즈님에 대한 답변

칼럼만 제대로 개선 된다면야 쿨와이즈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도 칼럼개선이 우선적 목적이었고 그 다음 다음칼럼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모든걸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지금은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다칼연이 이후에 계속 결속력을 다져나간다 하더라도

제목: 인간의 정체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것은 부모의 성적인 타락에 기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관장하는 (인간 위의) 차원에 사는 신 역시도 타락했다고 본다. 인간이 삶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것은 신의 타락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내천의 사상은 그래서 매우 설득력 있는 사상인데 우리 세상의 하위 차원(동물영역)과 상위차원(신적영역)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해 준다. 신의 차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과 사랑의 정도를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초월하며 이것은 암흑같은 어둠속에서 태양을 밝히려는 고통과 맞먹는다. 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고통을 쌓고 있는 신들 역시 인간들과 똑같이 안보이는 차원에서 홍수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간이 본래 타락한 동물이지만 엄청난 부성애를 타고 났듯이 인생이란것이 본래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것이 본질인것 같다.오늘은 이정도로... 승현아 어떠냐? 내 개똥철학이. ^&^ ㅋㅋ

제목: 정신병자를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말이 옳다고 침시다. 그러면 그런 정신병자들을 양산한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름아닌 우리사회 우리 정치권입니다. 정신병자들을 매도하기에 앞서 왜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정권부터 내려져온 군대식 교육, 개인의 창의적요구 묵살, 상명하복식의 지휘전달체계, 디지털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기득권들... 이들이 버젓이 건재하고 있는한 이런 정신병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양산될 것이오. 그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 당신이 될수도 있오. 이점 명심하시오.

제목: 제한적 실명제에 대하여...

영성한 실명제는 이익단체나 각종 기관 및 개인들의 조직적인 가(假)실명 가입으로 자칫 인터넷 세상의 여론이 거짓이나 가면을 쓴 실명으로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범국가적인 실명-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어느누구도 가실명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제한적 실명제 같은 정책은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을 '꾼' 이라고 해서야...

국민을 '누리꾼' 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 을 붙여 '기자꾼' 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 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에 대통령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글썽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 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 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리꾼' 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이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 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 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뉘앙스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보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리꾼' 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 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리꾼' 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추가>

국민을 누리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 이 모인 '글누리집'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 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 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해도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

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 —

제목: [펌] 배아줄기세포의 정체...

아래의 글은 줄기세포에 관해 찾은 정보인데 유용한 정보인것 같아 올려봅니다. 수정란이나 핵이식난자가 8주간 분열한 것이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태아가 되기 직전의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수 있을것 같은데.. 이글 마지막의 복제인간처럼요. 주의깊게 읽어보십시오. 태아를 찢어 장기를 만든다? 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짓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복제배아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인간이 수정란(정자와 난자가 융합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포입니다. (허나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줄기세포를 위해서는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자를 이용하지 않고 인간복제의 전 단계인 난자에 핵이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은 분화를 시작하면 여러개의 세포덩어리에서 조금씩 이 세포들이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단층의 세포로 속이 비는 구형의 겹질이 만들어지고, 이 구형의 약 1/3가량만 풍선에 물을 넣은것 처럼 세포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배아줄기세포(stem cell)'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분화능력을 갖고 있어 이 세포로 우리몸의 어떤 세포도 다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몸의 세포는 분화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세포는 아무리 분열해도 눈의 시세포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줄기세포는 인간의 불치병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클론'이라는 그룹의 가수이었던 강월래씨 같은 경우 사고로 인하여 등의 척추쪽 신경세포가 끊긴 상태입니다. 때문에 가슴아래로는 어떠한 움직임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신경세포는 피부와 같이 자연적으로 분열을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피부는 상처가 나면 새로 만들면 되지만, 신경세포는 새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이 이 연구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강월래씨의 세포핵을 어떤 난자에 이식을 시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일정 처리를 하여 이것을 신경세포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는 상처 부위에 들어가 원래의 상처난 세포대신 그자리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황교수님의 이러한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는 동물(개)에 대한 생체 실험까지 성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에 부딪혀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기술들은 말로는 쉽지만 정말 중간에 많은 기술적 생물학적 장벽들이 있는 기술들이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생각해 내고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칭찬받을만한 업적이긴 합니다. 허나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즉, 이 기술들이 단순히 위와 같은 방법으로만 쓰이면 정말 좋겠지만, 배아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클론(복제인간)을 만들수 있는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지 않고, 핵이식된 난자를 그냥 착상시켜 키우면, 그것이 복제인간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 또한 확립되어 있어야만 하고, 이를 통제할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허나, 아직 현재의 기술로서는 이러한 과정으로 클론을 만든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분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기형적으로 분화를 한다던가 분화를 분화를 중지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목: ㅎㅎ, 하나포스는 잡탕밥인가?

한마디로 어이가 없군요. 가만히 눈에 들어오는 메뉴들을 분석해 보니 국내소식과 해외소식, 시사와 연예, 성인물과 정치, 스포츠와 유머 등이 함께 어지럽게 뒤섞인 잡탕밥도 아니고 난잡한 싸구려 포탈을 연상시키는군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대형 포탈이라고 할수가 있을지.. 정말로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제발 정신좀 차리고 교통정리좀 하시는게 어떨지...

제목: OS 차원의 해킹 있다...

'칼럼과 블로그 문화의 퇴보...' 원문

<추신2>

제가 오랜간의 컴퓨팅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서버측이나 클라이언트 PC측에서 OS(Operating System) 차원의 해킹이 개입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도 알 수 없는 에러와 변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OS 차원의 해커가 개입됐을지도 모른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명확한 오류라면 해결하면 되겠지만 어떤 오류는 틀린데가 전혀 없는데 에러가 나거나 똑같은 소스에서 몇분뒤엔 다시 실행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OS가 MS나 외산업체에 종속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의 변조는 주의만 기울이면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제 게시판에 방문하십시오.